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체

9

충현의 만나

2008

가정예배 느헤미야 · 에스더
옴기 · 마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9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느헤미야 · 에스더
옴기 · 마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남골시설 건립 및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⑧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4. 6.~10. 4.)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증언

바라봅시다! 갈보리 십자가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수치와 조롱, 견디기 힘든 육신의 고통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만 인류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는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로 참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전합시다! 갈보리 십자가를……

갈보리 십자가의 표적이 진짜입니다.

인류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삶의 유일한 대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 이웃들, 민족과 온 세계인들에게 증언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증언을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으로!

2008년 9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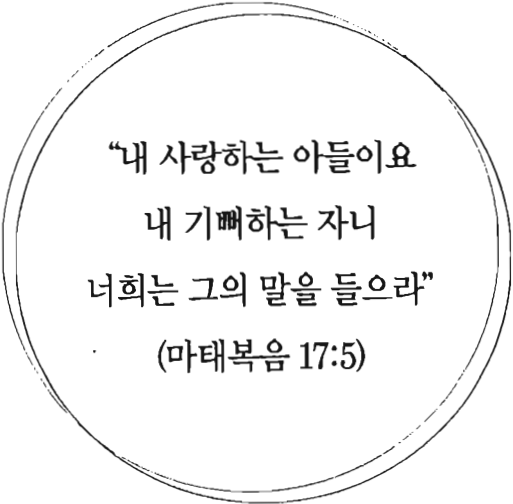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매일 성경묵상

(가정예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5)

예루살렘 성벽완공 이후에 시작한 영적 부흥운동은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9:38) 백성들을 대표하여 인침 받은 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제사장들(1~8절), 레위인들(9~13절)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14~27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언약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불순종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만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주는 교훈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며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인을 친 것은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기로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스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많은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시고 섬김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걸어가셨던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말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느 10:35)

기도 제목 ①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수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1차 귀환자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토대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적절히 재배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일차적으로 사용한 인구 재배치의 방법은 '제비뽑기' 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해 구약시대에 흔히 사용된 방식이었습니다.(민 26장)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 것은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잠 16:33)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롬 12:2)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체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닦아놓은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제비뽑기의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적국들의 공격 대상이었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며 예루살렘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눅 22:42)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느 11:20)

기도 제목 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제1차 귀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재배치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전 제사제도를 정비하고 예루살렘 성벽완공 감사 봉헌식을 담당할 자를 확인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27절) 이들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성전 제사제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신실한 일꾼을 계속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바벨론 포로기간 중에도 단절되지 않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히 8:1)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은 주님에 의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시 112:6)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일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도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계 21:27)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기록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느 12:43)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모습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합니다. 특별히 이방인 축출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중심한 것으로서, 신명기 23장 3~6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으로서(창 19:36~38),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신 2:9,19), 도리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했으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선지자 발람을 매수까지 했습니다.(민 22~24장) 그들은 영원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총회에 축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며(마 13:30)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들을 나누실 것입니다.(마 25:32~33) 그 날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영원의 세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삶에서 불의하고 죄악된 요소를 용납해서는 안 됨을 교훈해 줍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을 총회에서 철저히 가리내야 했듯이, 성도들도 자칫 간과하기 쉬운 죄악의 요소를 빠짐없이 분별하는 지혜와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를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갈 5:24)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히 12:4)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느 13:27)

기도 제목 ① 죄에 대한 분별력과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에스더서는 제1차, 제2차 포로귀환 사이(B.C. 537~458년)에 바사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유다 민족의 구원역사입니다. 그중 에스더서의 배경으로, 당시 근동을 위시하여 북아프리카 지역의 맹주였던 통치자 아하수어로(일명 크세르크세스 1세, B.C. 485~464년)가 베푼 대연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1~8절) 아하수어로 왕은 미모가 출중했던 왕후 와스디를 귀빈들 앞에 등장시켜 자신의 영예를 드높이려 했으나 왕후 와스디는 이를 거절합니다. (9~12절) 왕의 명령이 법이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와스디의 행동은 오만불손 하였습니다. 결국 아하수어로의 노를 산 왕후는 폐위되고 맙니다. (13~22절) 이러한 사건은 에스더를 바사의 왕후로 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영화와 자신의 권세를 널리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의 대대적인 만찬을 배설했던 아하수어를 보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패한 허영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도 이런 망령되고 부패한 허영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허영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하수어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어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에 1:1)

기도 제목 ① 오직 하나님만을 늘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훗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데 예비시켜 주신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간택됩니다. 아하수어로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 왕후를 폐위시킨 지난 날의 결정을 후회하자 폐위에 적극 동조했던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 선택을 간하게 됩니다.(1~4절) 전국에서 모여든 아리마운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됩니다.(5~8절) 한편 에스더의 일로 바사 왕국에서 벼슬을 하게 된 모르드개는 아하수어로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19~23절) 실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의 뒷전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되어 십자가 복음의 증언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지위,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포로의 딸 에스더가 당시 중근동 일대의 최강대국인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고 보잘 것 없는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보잘 것 없는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갈보리 언덕의 거친 십자가! 참으로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육신에 속하여 거듭 죄를 지으며 실패합니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에 2:17)

기도 제목 ①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신의 높은 지위에 도취한 하만은 유독 모르드개만이 자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자신의 악한 저의를 숨긴 채 아하수에로에게 유다 민족을 말살할 법령을 승인받습니다.(1~15절) 이러한 하만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아서 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을 의아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희생의 수고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굽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그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며, 거룩함에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됨이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내팽개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에 3:6)

기도 제목 ① 영원한 것을 부여잡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성찬식과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더욱 견고한 충헌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만의 음모를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8절)는 모르드개에의 제의를 받아 들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건 일대 모험이었으며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출 4:10) 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일을 꺼렸던 것처럼 에스더 또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11절) 하며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14절) 하며 강권하는 모르드개를 통하여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대항해야 할 선봉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인 권유를 이해하였으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후의 “죽으면 죽으리라”(16절)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순교자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에 4:16)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드리게 하소서. ② 추진 중인 양로원과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죽음을 무릎쓰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창 6:8) 왕의 총애를 받고 잔치를 베풀어 자기 소원을 아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만은 왕비의 특별 연회에 왕과 자신만 초대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연회를 통해서 모르드개를 처형시키려고 음모를 꾸밈니다.(9~14절) 자신의 죽음의 날이 가까운 줄 모르고 악한 계획에 들떠 있는 하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대변해 줍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면 기뻐하며 자신들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며, 한순간에 홀연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애쓰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으며 이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의 삶인지, 영원의 세계를 간직하려는 몸부림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말씀 앞에 회개하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 놓고, 자기를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인에는 이 모든 일이 만 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에 5:13)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모르드개의 숨은 공적이 절묘하게 밝혀지면서 모르드개가 큰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잠을 못 이루던 아hashue로 왕은 어느 날 밤 궁중일기를 들추다가 모르드개의 공적을 뒤늦게 발견합니다.(1~3절)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만은 어리석게도 모르드개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을 크게 높일 방책을 만들어 내어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4~14절) 그러나 왕은 오히려 모르드개를 높이고 하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명령합니다. 모르드개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에 태운 뒤, 하만이 그 말을 끌고 앞장 서서 걸으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11절)고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훼방하고 핍박하는 악인이 잘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악인의 목은 꺾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모르드개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따라 진행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예 6:13)

기도 제목 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② 수요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안타까운 유다 민족의 현실을 아하수어로 왕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1~6절)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2절) 합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절상 위에 엮드린 것을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7~8절), 마침내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9~10절)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며, 공의와 진리로써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결국은 파멸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악인들과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던 왕이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애쓰며,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참 행복과 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오늘 하루로 충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에 7:10)

기도 제목 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왕은 처형당한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이 가졌던 직위를 모르드개에게 주었습니다.(1~2절) 하만이 죽었지만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왕의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다시 간청했고, 왕은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3~8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대적들을 살육하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새롭게 작성되어 제국의 모든 지방에 반포됨으로써 유대인들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9~14절)

에스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살육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같이 유다 민족의 운명이 평범했던 한 여인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삶의 증거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영원 속에 동참하는 삶의 증거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에 8:6)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대인들을 살육하기로 작정되었던 12월 13일에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모르드개의 권력은 점점 굳건해졌습니다.(1~4절) 유대인들은 수산 성에서 오백 명의 대적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들도 죽였으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습니다.(5~10절) 에스더는 대적을 살육하는 날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기를 간구했고 왕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11~16절) 그 후 유대인들은 14일을 잔치로 기념했고, 수산 성의 유대인들은 살육의 기간을 하루 연장 받았기 때문에 15일을 잔치로 기념했습니다.(17~19절)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이 날을 '부림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자손대대로 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20~32절)

부림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며 민족적 멸절의 위기로부터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자손대대로 기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축제의 궁극적 완성은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표시가 부림절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표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직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던(22절) 유대인들의 고백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의 세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끌어안으며,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며 영원의 세계를 간직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에 9:31)

기도 제목 ①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② 추석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치 않게 도우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모르드개는 하만의 눈 밖에 나서 목숨을 앓을 뻔하였고 하만이 양신을 품고 유대인들을 살육할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모두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어 하만은 줄지에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앞뒤 상황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만과 같이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살육하려 꾀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꾀를 허벌어뜨리고 악인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9장으로 끝날 듯하던 에스더서는 10장을 덧붙여 말미에 매우 의미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선민구출과 대적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르드개로 대표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의 계획성취를 위한 한 방편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 원합니다.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에 10:2)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부를 누리는 옴과(1~5절) 옴에 대하여 시험할 것을 획책하는 사탄과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6~12절),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옴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13~22절) 고난을 극복한 옴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공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역사하는 사탄의 간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며(창 3:15) 송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탄의 간계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옴을 괴롭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옴의 경우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인생이기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가장 큰 사랑을 입었으므로 십자가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십자가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달으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옴 1:22)

기도 제목 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시험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천상회의가 열리는 광경은(1절) 옴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일종의 내기를 벌이는 듯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여는 장면을 보여 줍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여 순전한 삶을 살았던 옴에게 닥친 시련의 의미는 막연히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하여 직접 느끼게 합니다.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 옴의 시련을 빌어 우리의 어려움을 변론하며 항변하고 불순종하려는 입을 다물게 합니다. 까닭모를 괴로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며,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어렵지만 순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며,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3절)

“기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4절)는 송사 앞에 사도 바울의 외침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바꾸려는 사탄의 간계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걸읍시다. 그리고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옴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옴 2:13)

기도 제목 ①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고소자 사탄의 계교는 옴에게 더 큰 고통과 시련을 주어 옴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옴의 애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애가를 통해 옴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11절) 엄청난 고난에 시달린 옴은 살아 있는 것이 결코 죽음보다 낫지 못하다는 비통한 말을 함으로써 영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1~10절) 죽음의 세계를 동경합니다.(11~19절) 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희망이 끊긴 자신의 상태(20~26절)를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사탄이 목표하였던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2:5)하는 죄악을 범치 않는 옴의 믿음은 경건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23절)하는 옴의 고백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율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1:10)라는 사탄의 송사는 대비됩니다. 하나님께 둘러 싸여 있음을 시인하는 사탄이지만, 옴으로 하여금 “둘러 싸임이 올무가 됨”을 토로하게 만드는 사탄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놓고 싶었던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탄식하며 아파하고 태어난 날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옴의 탄식(24~25절)을 빌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간계는 매우 지혜로와 우리를 바다까지 떨어뜨리며 하나님께 둘러 싸임조차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둘러 싸여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옴 3:20)

기도 제목 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안전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고난 당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7~8절)라고 하는 옙의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옙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과응보적 논리로 옙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정죄는 추상적인 이론에 치우쳐 독선적이고, 외식적인 원칙만을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충고자, 훈계자, 정죄자의 태도로 옙을 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웃의 환난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없이 정죄하며 별것 아닌 듯이 말의 실수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닳치며 네가 놀라는구나”
(옙 4:5)

기도 제목 ① 고난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한탄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4장에 이어 계속 종용합니다.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8절)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내가 너와 같은 경우라면 나는 너처럼 그렇게 역정을 내고 흥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일 그런 경우를 당하면 나라면 이렇게 했을 터인데.”하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위로해 주기보다 아픈 곳을 찌르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의 과정으로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이며(히 12:11) 고난 당하는 성도와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만사형통’을 누린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으며, 바울은 무수히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할 때 고난을 이겨낼 거룩한 용기를 주십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욥 5:17)

기도 제목 ① 고난의 때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맺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순결한 신앙과 의를 주장하고(1~7절)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4절)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혹독한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8~9절) 비현실적인 이론으로 욥을 질타하는 엘리바스의 변론처럼 고난 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24절)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9~30절)

욥이 계속 주장하는 단어는 “나는”, “내가”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내가 무엇 무엇을 하였고”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과 탄식을 함께 나누며, 아파해야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1:1)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무의식 속에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의”는 교만을 낳으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닥에까지 떨어진 욥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경험이 있었을 때, “나는 다 내려놓았어.”라는 고백 속에도 “자기 의”가 툭툭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총으로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 놓을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실패한 베드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욥 6:4)

기도 제목 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1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복음 이 세 가지 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메시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포함한 모든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생각없이 무심히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인지요! 마가복음 전체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쓰는 마가는 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9~11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12~13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는 사역의 처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14~15절)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회개하고”와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 속에 살고 있는 은총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② 교사 양성부 및 찬양대원 양성부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병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1~12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5절)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을 하시고, 다시 죄의 용서에 대한 증거로 병을 고쳐 주십니다. 구약은 사람의 질병과 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시 103:3)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중병은 그의 큰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요 9:2)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이 예수님께서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5절) 선언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임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7절)는 자기 주제를 넘어 하나님께 방자스럽게 언행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비판하였을 것입니다. 종교의식과 전통을 내어 놓고 판단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짊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식자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와 죄인을 부르시고(13~17절), 인자로 오셔서(10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며 죄 사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막 2:10)

기도 제목 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을 고발하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네 손을 내밀라”하시고 고쳐주십니다.(1~6절)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결코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을 시작합니다.(6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 진리가 선포되면, 악한 자들은 회개하기보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과 교만을 모두 내려 놓아야 합니다.

무리와 가족들 두 그룹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며 예수님이 미쳤다고 합니다.(21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지켰으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22절)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두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서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와(7~12절) 가족과 친지들, 열두 제자를 부르심(13~19절)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회개하고, 내 몸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체험하며 복음을 증언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막 3: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십니다. 6개 씨의 비유(1~9절), 비유의 목적(10~12절), 비유의 해석(13~20절), 등불 비유(21~25절), 성장의 비유(26~29절), 겨자씨 비유(30~32절), 비유로 가르치심(33~34절), 풍랑을 잠잠케 하심(35~4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길 가 밭과 같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려 할 때 깨달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저편까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천국까지 같이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는 당황하며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할 것이라는 생각은 믿음의 근본조차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떠한습니까?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갈 때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우상을 만드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잃는 길이며,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광풍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막 4:3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거라사의 광인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3~5절) 더러운 귀신 들려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은 데가볼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 지배할 때 우리 몸?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거라사의 광인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아 온 여자(26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레 15:19~27) 하여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대답이 없는 여자입니다. 12년 동안의 절망스럽고 괴로운 삶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귀신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근원되사 혈루병 앓는 여인과 아이로의 딸을 고치신(35~43절) 예수님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을 간과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지만 허락치 않으시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붙잡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19절)하시고 복음전파에 힘쓸 것을 명하십니다. 그가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합니다.(20절) 예수님의 옷을 만지며 십자가를 만지며 주님을 찾읍시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실 것입니다.(32절) 그리고 나아가 가족에게 알리며 이웃에게 알리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간증이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막 5: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둘씩 보내시며 어떻게 선교를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7~13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시작한(1:3~5) 마가는 끔찍한 요한의 처
 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14~29절) 요한의 처형은 십자가를 예시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고(30~44절) 바다 위로 걸으시고
 (45~52절),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53~56절)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관계 없이
 멀리 떨어뜨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본 적이 없는 인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삶의 실제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인간 예수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방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
 진 것이 없고 교육 받은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쳐버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과 배척을 받으며 전파됩니다. 오늘날의 선
 교와 너무 다릅니다.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명하
 시는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
 을 받는데 있습니다. 선교의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
 며”(8절) 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친히 가십니다. 우리의 사역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천대를 받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에 십자가의 흔적만 가지고 가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막 6:8)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장로들의 전통을 인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입니다.(1~23절)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잘못된 면만 잡아내어 모함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더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하지 않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하여 “외식하는 자”(마 23장)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고 책망하십니다.(6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식자의 믿음과 대조적으로 중심을 드리는 이방 여자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를 개라고 부르십니다. 개는 당시 가장 경멸스러운 대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립니다.(25~28절) 우리 일생을 돌아볼 때 다 내려놓고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엎드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의식중이라도 전통과 외식으로 판단하며 교만과 자존심으로 뭉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다면 이 길을 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 영원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 7:28)

기도 제목 ①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교육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며 위로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15절)은 위선과 외식이며 헤롯의 누룩은(15절) 세속주의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을 지닌 대표적이었던 자가 헤롯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매순간 넘어지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생명의 떡(19~20절)과 누룩은 십자가와 사탄의 권세를 대조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벳새다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22~26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27절)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 이다”(29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할 것(31절)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33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고 탄식하시는(12절) 말씀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경이로움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하리라”(35절)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인 복음전파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기도 제목 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차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1절)는 말씀을 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로부터 메시아이심을 선포받으셨습니다.(1:11) 이제는 공생애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시 한번 하늘의 인정을 받으십니다. 마태(마 17:1~13), 마가, 누가(눅 9:28~36)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막연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여기가 종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5절)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던 베드로는 훗날 이 일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벧후 1:16~18) 증언합니다.

“비켜, 내가 해 볼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놓고 서로 고쳐보겠다고 다투었습니다.(18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가지만 “인자의 죽음과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함을 듣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토론과 쟁론을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33~34절)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쟁론하십니까? 다투고 쟁론하고 예수님 앞에 내어 놓을 것이라고는 죄 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었던 영원의 세계! 오늘 우리가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막 9:7)

기도 제목 ① 믿음으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25절) 이것은 부자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신만만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7절) 합니다.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19~20절) 예수님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21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맙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꿰뚫으시며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자신했던 그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27절)입니다. 이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지만(32~34절) “누가 크냐”를 쟁론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다툼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47절) 예수님은 부자에게 “선한 선생님”(17절)이었고, 맹인 거지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며 찾으십니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찾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철저히 죄인됨을 발견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십자가를 찾기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기도 제목 ①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영혼구원의 열심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9월 구역교재 초점

믿음의 증언

믿음의 증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과 부활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두 세계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 열린 영원한 세계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참 신자는 참 감사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며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금요일	본 문	제 목	초 점
0905	고전 11:23~26	감사의 성찬식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라
0912	막 5:25~34	네 믿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0919	벧후 1:12~18	베드로의 증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0926	마 12:38	표 적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에 초점을 맞추라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감사의 성찬식

| 초 점 |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라

| 찬 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고린도전서 11:23~26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감사를 써 보십시오

감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감사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성구를 찾아서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 95:2 / 시 105:1 / 시 106:1 / 시 118:1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요 11:41),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요 6:11),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마 11:25)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자신의 몸이 희생제물 됨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셨습니다.

고전 11:23~24 /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 하
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_____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고통스런 희생에 대해 감사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 53:5~6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롬 5:8 / 우리가 아직 _____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
□□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복음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자신의 피흘림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됨을 감사하셨습니다.

고전 11:25 /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_____
_____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종결지었습니다. 산 제물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죄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 1:29

벧전 1:19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과 수치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막 10:45

※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자신의 재림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것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고전 11:26 / 너희가 이 을 먹으며 이 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눅 22:19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찬식은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재림을 기념합니다. 모든 성찬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행 1:11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성찬식은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승리의 왕의 재림을 경축하게 될 것입니다.

골 2:15

※ 요한계시록 22:1~5 말씀을 묵상한 뒤에 재림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주의 만찬은 감사로 풍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희생제물됨을 감사하셨습니다. 피흘림도 감사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음도 감사하셨습니다. 희생제물과 피흘림은 분명 고통이지만 그 이면의 영광의 승리를 보셨기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감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에 넘쳐야 합니다.

엡 2:13~16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구속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제6차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감사를 닦게 하소서.
2.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매순간 기념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2과 네 믿음이

| 초점 |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 찬송 |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 본문 | 마가복음 5:25~34

⁽²⁵⁾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²⁶⁾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³³⁾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³⁴⁾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 진실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히 11:1

본문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중한 병을 앓고 있었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은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때 여인은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혈루병 여인을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여인은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다

여인의 병은 너무나 오래되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막 5:25 / □□□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여인은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레 15:2)

※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설명해 보십시오.

혈루병이 여인의 온몸에 퍼져있는 것과 같이 죄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 희생을 바친다고 해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롬 6:12

여인은 절망하였다

여인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막 5:26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막 5:27 / 예수님의 □□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들은 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 믿음의 실천

어린 여종(왕하 5:1~4)	안드레(요 1:41~42)	빌립(요 1:45)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엡 3:20

히 13:8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혈루병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제지합니다.

※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로 갈 때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여인의 믿음과 소망은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군중 속을 파고 들어갔고 마침내 그분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갔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같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눅 19:3~6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막 5:28

히 4:15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치유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요 4:50 ; 행 3:7 ; 막 8:22~26)

예수님은 찾으셨다

예수님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막 5:32 /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 보시니

예수님은 이 믿음의 여인을 보시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막 5:34 / 딸아 ☐☐☐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마 21:21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했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참 믿음은 산을 움직이며, 사자의 입을 막고, 극렬한 불을 끄며, 옥문을 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혈루병 여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2. 고난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3과 베드로의 증언

| 초점 |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 찬송 |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본문 | 베드로후서 1:12~18

¹²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
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¹³내가 이 장
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¹⁷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
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
라 ¹⁸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
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특히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매우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 마태복음 17:1~8 말씀을 설명해 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이내 회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대로 순종하였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이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벧후 1:1

벧전 1:7

베드로의 증언은 꾸며낸 이야기나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사실입니다. 그의 실패가 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자존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벧후 1:16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그들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막 1:17~18 / 예수께서 이르시되 _____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_____ 따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방법과 의지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 16:24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영의 눈을 떠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영의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합니다.

벧후 1:16 / ……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라

마태복음 17:2~3 말씀은 변화산상의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증언은 예수님은 진짜이고, 그분은 주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마 17:5

베드로는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 그곳에 초막 세 개를 지어도 되느냐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맙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마 20:33

※ 영적 맹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벧후 1:17~18 /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이라

※ 지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성구)을 쓴 뒤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토(13일)	주일(14일)	월(15일)	화(16일)	수(17일)	목(18일)

모세와 엘리야는 임박한 십자가와 죽음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눅 9:31) 그들 세 사람은 온전히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변화산상의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벧전 5:10

벧후 3:18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님께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삶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깨어있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살전 5:6

※ 베드로처럼 나의 믿음을 증언해 보십시오

나의 증언 →

베드로는 위대한 전도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신 주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증언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했기에 소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을 주소서

4과 표적

| 초점 |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에 초점을 맞추라

| 찬송 |

찬송가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 본문 | 마태복음 12: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현대인들은 이성적 사고, 논리적 설명, 과학적 증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음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도 표적을 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2:18

마 24:3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 20:29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_____ 믿는 자들은 _____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표적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세 가지 사실만 살펴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사 7:14 /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눅 1:31,35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 외에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십니까?

마 12:39

고후 5:7

그리스도는 죽으시며 장사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마 12:39~40 /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풀러나기까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 53:5

사 53:10~11

말씀은 확실한 표적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믿지 않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딤후 5:12

※ 현재 내가 주님께 원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없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 2:18~19 /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성전을 짓기까지 46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표적이었습니다.

요 2:21~22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또한 부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언된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요구했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마 12:24

탄생, 죽으심, 부활, 이 세 가지 표적은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표적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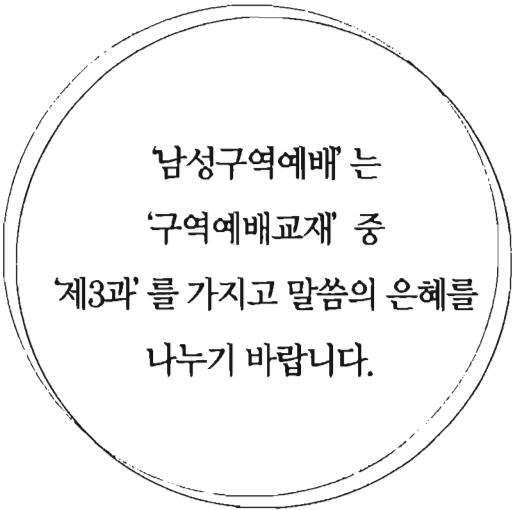
요 14:2~3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말씀이 전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증언

⁽¹²⁾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¹³⁾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¹⁷⁾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¹⁸⁾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12~18)

베드로의 증언은 꾸며낸 이야기나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그분 곁에서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뼈아픈 실패를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10일 동안 기도한 뒤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은 생애 동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 충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벧후 1:1) 그의 실패가 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확고한 기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본문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변화산상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비판자들의 세상목소리를 잠재워버렸습니다. 아직도 자존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16절)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그들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해왔던 자신들의 일들을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막 1:17~18) 그들은 한 번도 돈이나 작업여건,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의

무, 여가시간에 대해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고 주님은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방법과 의지를 버리는 완전한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영의 눈을 떠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16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2~3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궁극적으로 베드로의 증언은 예수님은 진짜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시며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베드로는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 그곳에 초막 세 개를 지어도 되느냐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베드로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가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빛의 옷을 입은 듯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에 너무나 감동받은 나머지 즉시 초막 건축계획에 착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맙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

적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에 대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17~18절) 모세와 엘리야는 임박한 십자가와 죽음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눅 9:31) 그들 세 사람은 온전히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변화산상의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주님께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삶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깨어있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9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